



#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침체된 수입 닭고기 시장에 뜻하지 않게 큰 혼동이 있었다. 날개(wings) 품귀현상이 그것이다. 국내 도매시장에서 12월까지 kg당 가격이 2,200원선에 거래가 되었으나, 1월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부산지역에서는 4,000원까지 거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날개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물량을 공급하는 무역회사의 불협화음이 알려지면서 대다수의 무역회사들은 날개구매에 집중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다.

덴마크 ROSE사의 날개(Three Joint Wings)의 경우 이미 상반기까지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브라질산의 경우도 1/4분기 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다.

현재 날개는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의 재고와 상반기까지 꾸준히 수입될 수량을 파악해 보면 공급초과는 자명한 일이다. 상기 거론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많은 업체들의 희비가 분명해질 것이며, 잘못된 판단으로 시장에서 아웃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AI 사망자가 발생해서 다

시 한 번 여론과 관계 업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사망했던 170명의 사망자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발생했으나, 1월부터 터키를 중심으로 AI감염자가 급격히 확산돼 이라크까지 전염이 되었다. 가축과 함께 생활하며 손으로 식사를 하는 관습들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일본의 모 신문에서 북한의 AI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확한 사실여부는 북한만이 알고 있으나, 이 신문사의 논설에 대해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월만 잘 보내면 춘삼월이 온다. 3월이 되면 AI의 공포에서 당분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세계 가금육 시장흐름을 잘 파악하면 한국의 닭고기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12월 오퍼가격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소 재고량만을 가져가기 위한 물량이 계약되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가 1/4분기 쿼터를 일

부 승인함에 따라 탄력을 받았으나, 보험세를 이 루고 있다.

원료육 꼬치작업을 하는 공장들의 재고가 소비되지 않는 채 재고량이 늘고 있어서 미국산 꼬치의 덤핑가격이 보이기도 한다.

## 브라질

한국에 수출가능한 모든 공장들의 1/4분기 날개(Wings)가 전부 계약되었고, 한국 업체들로부터 계속되는 추가 생산을 주문받고 있다. 국내의 재고량과 덴마크와 브라질산의 날개가 계약한대로 수입된다면 2/4분기 시장의 가격흐름은 크게 변할 것이다.

정육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수입된 가격이 2,200~2,400불이었으나, 브라질 주요시장인 일본, 홍콩, 러시아의 수요가 좋지 않아 국제가격은 꾸준히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 중국

AI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스템 꼬치(Stemed Yakitory)의 경우 이미 시장에 정착되었고, 올해를 거점으로 조미가 된 중국산 데리야키 꼬치가 정착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육의 중요 시장인 꼬치의 판매형태를 보면 이미 대다수의 소매업체들이 가공품으로 전환되었고 과거 냄새가 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크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

몇몇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서 스펙작업을 마쳐 1월부터 통관되고 있으며, 대구와 부산시장의 호응도 좋게 보인다.

## 덴마크

1월부터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고품질의 닭고기를 원하는 업체들의 경우 꾸준히 물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물량부족으로 1,900~2,100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I.Q.F(개별급속냉동) 상품으로 공장에서 작업하기 용이하고 소매판매가 가능한 지라 ROSE 브랜드의 Whole Legs의 경우 물량이 부족하다. 1월에 수입되는 물량 또한 크지 않아 가격흐름은 미국산과 관계없이 이와 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중국산 가공품의 시장정착으로 인해 뼈를 발골해서 작업했던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공장들이 재고를 갖고 있으나, 공장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몇몇 수입업체들은 중국산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고,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06년 닭고기 수입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무역업체들은 판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을 매수 합병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어 안정적인 판매처를 얻고자 할 것이고, 공장들의 경우 꾸준한 공장운영을 위해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해 힘겨운 과정을 체험하면서 대다수 업체들은 홀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서로간의 '짜짓기'를 원하고 있다. '타사가 없어지지 않으면, 자사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사고가 업체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이 흐름에 역행하는 업체들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